

# 교회소식

2021. 12. 12. 227호

-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교회 출입 시 현관에서 손을 소독 후에 입장하시고 예배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세요. 예배 후 지하에서 친교를 나눕니다.  
 생일: 김현실(12/3), 오알렌(12/16), 표채윤,소윤(12/18)

2. E-transfer 현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 3. 성탄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 어린이교회 성경퀴즈대회와 달란트시장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합창연습은 주일예배 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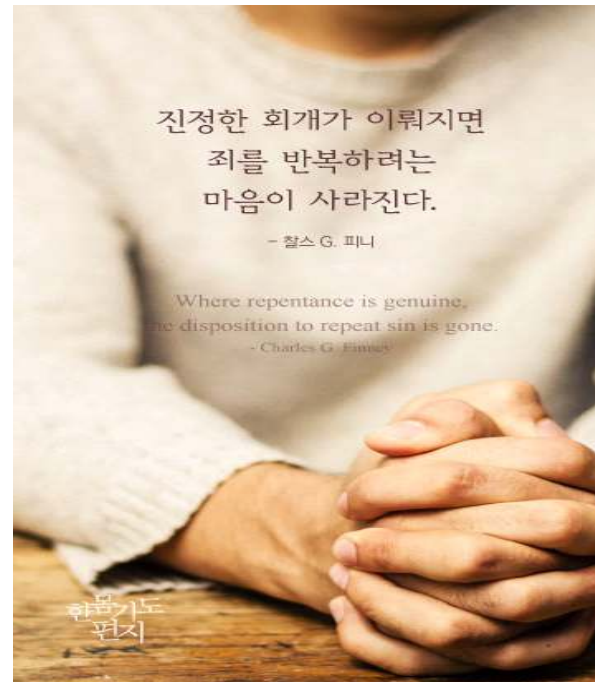
4.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11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5. 말씀의 삶: 저녁 7시 줌으로

6. 2022년 예결산 제직회: 12월 19일 주일예배 후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40	1,2,38,46	
감사 헌금	CD \$170	1,2,12,21	
십일조	CD \$200	2	
기타	CD \$260.30	렌트비지정헌금, 빈병모으기	
장년 출석	10	어린이 출석	10

##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http://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찬 양		다함께
대표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요일 1:5-10	다함께
설 교	사림은 회개로부터 시작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함께
헌 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축 도		김승용목사

## 요한 1 서 1:5-10

-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2)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2)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 목회자 칼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겪고 있는 수 많은 위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단같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마치 녹슬고 어그리친 철을 다시 풀무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들을 태우고 망치로 때려서 제 모습을 찾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시키며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 일서에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림의 전제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을 늘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삶은 보니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더구만, 너희도 우리랑 같이 죄를 지으면서 말로는 자기는 의인이네 어쩌네 하는 거잖아!” 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죄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꾸짖을 때 다윗은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죄를 회개한다면 몇 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라고 하시면서 그 용서의 횟수를 70번씩 7번(완전한 숫자, 무한을 의미)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죄를 짓고 그저 회개만 하면 죄가 사라진다면 범죄함에 대한 너무나도 가벼운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범죄함에 대한 만성(반복적인 죄) 인식해 지고 죄악에 대해 무덤덤)을 불러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댓가없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저 없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정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가 주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는 결국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가 하나님과의 사림의 전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사림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결국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랑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하고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림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항상 회개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벗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